

2027  
수능 국어

- EBS 연계 문학 작품 분석집
- 수능특강 전 작품 수록

# 더아 권민경 - 박광일 사 기 문 학 연 계 교 전 시 가

-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와 연계하여 2027학년도 수능 문학 완벽 대비
- ✓ 2027학년도 수특 고전시가 전 작품 및 기출(수능·모평·학평) 전 문항 수록
- ✓ 2026학년도 수능의 EBS 연계 경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방향 제시
- ✓ 심도 있는 분석과 친절한 해설로 자기 주도 학습 가능

박광일 지음

혼자서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수험생을 위한 강의

박광일의

## 훈련도감-E 수특정복

**[고전시가]** EBS 연계 학습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강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EBS 연계 문학 강의 [바로 보기]



EBS 연계 문학 작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수험생에게

# 훈련도감-E 수특정복 고전시가가 답인 이유!

1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 완성

EBS 연계 교재의 출제 요소와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핵심 출제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작품 해설과,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플랜을 통해 이 시리즈만으로 EBS 연계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EBS 연계 교재의  
모든 작품 분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모든 고전시가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최신 수능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석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작품의 내용과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과 함께하면 **좋은 점**



## **첫째**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학습 가능

EBS 연계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 박광일 선생님이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EBS 연계 문학 전 작품 강의를 제공합니다.

## **둘째**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은 심도 있게, 출제 가능성이 낮은 작품은 핵심만 짚어 강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셋째** 강의를 따라오면 어느새 EBS 연계 학습 완료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 강의를 통해 작품별 학습 강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EBS 학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포인트를 도식화하여  
학습 효율성 극대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전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출제 요소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

EBS 연계 작품과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와 해설 수록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은 해당 기출 문제를 모두 모아  
수록했습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원리를 익히고 실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언제나 열려 있는 Q&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이투스(<https://www.etoos.com>)  
박광일 선생님의 Q&A 게시판을  
활용해 보세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공부를 도와드립니다.



✓ EBS <보기>의 공식

EBS 연계 교재에 실린 <보기>의 내용과 작품의 근거를 통해 해석 가능한 내용을 공식화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BS 연계 교재 <보기> 문제 에서 어떠한 내용을 묻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보기>의 공식**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보기>의 내용**

「원가는 신라 34대 효성왕 신중이 지은 향가인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 신중과 더불어 궁정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다가 신중에게 "훗날 내가 만일 그대를 잊는다면,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정답함. 하지만 왕위에 오른 효성왕은 공신들에게 상을 내릴 때 신중을 잊어버림. 신중이 이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고, 이 사실을 들은 왕이 신중을 등용하였음.

작품의 근거		해제
'질 좋은 잣'	+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왕의 말을 떠올리게 함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	+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을 잊지 않겠다고 왕의 다짐을 환기함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	=	변화된 분위기를 드러내어 자신에 대한 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밝힘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제시함

**작품 파고들기**

- 전승담과 함께 전해지는 향가 대개 향가는 시가 작품과 그에 얽힌 작과 유통, 효과와 평가 등에 관한 되고 있다.
- 배경 설화를 통해 보는 '원가의 기능' 이야기 속에서 '원가는 효성왕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가능하고 있다. 이는 군신 간 신의와 언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치로서 작용한다. 군신 간에는 신과 의가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누를 범하게 된다는 준엄한 경계를 표출하려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를 붙이자 잣나무가 말라 버리고, 작가가 원하던 바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주술적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작품 파고들기

학술지와 논문을 기반으로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작가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난도 <보기> 문제에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작품 마무리

작품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 모았습니다. 작품의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정답과 해설

정·오답 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9 정훈 「월곡답가」

· 문제 P.046

| 오답 풀이 |

- ① (가)에서 ㉠(죽은)은 화자가 '상사동'을 쓴 뒤 자신이 느끼는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연 소재일 뿐,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
- ② (가)의 '인정이 관찮으면'은 화자와 임이 이별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정은 이별 전에 화자와 임이 나누었던 사랑을 의미할 뿐,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백은)은 '승어 거신 저 내 벗님' 주위를 두른 것으로 자연 속에서 은둔하는 임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없다.
- ⑤ (나)에서 ㉣(상사)은 화자가 임과 함께 깨고자 하는 '영자가 자라난 공간일 뿐, 화자와 임이 함께 지내는 공간인지는 알 수 없다.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④

[1~4] 1907학평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 / 정훈, 「월곡답가」

INTRO

고전시가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 2026 수능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 P.010
- 2026 수능 ..... P.011
- 2026 9평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 P.012
- 2026 9평 ..... P.013
- 2026 6평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 P.016
- 2026 6평 ..... P.017

- 01 안민영, 고을사 저 꽃이어~ ..... P.022
- 02 오경화, 피골피골 우는 소리에~ ..... P.024
- 03 이규보,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 P.026
- 04 신중, 원가 ..... P.028
- 05 이순신, 진중음 ..... P.030
- 06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P.033
- 07 김삼현, 내 영혼 술에 섞여~ ..... P.037
- 08 작자 미상,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 P.039
- 09 정훈, 월곡답가 ..... P.041
- 10 조식, 두류산 양단수를~ ..... P.048
- 11 김천택, 요일월 순건곤은~ ..... P.050
- 12 작자 미상, 대장부 공 이루고~ ..... P.052
- 13 원천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 P.054
- 14 작자 미상, 연못에 비 오는 소리~ ..... P.056
- 15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 P.058
- 16 송순, 면앙정가 ..... P.064
- 17 작자 미상, 사친가 ..... P.084
- 18 이진유, 속사미인곡 ..... P.092
- 19 작자 미상, 몽금포 타령 ..... P.102
- 20 이중경, 어부별곡 ..... P.107
- 21 작자 미상, 유산가 ..... P.110
- 22 신교, 백석정별곡 ..... P.120
- 23 김상현, 성패관천운 ..... P.126
- 24 최명길, 정치관군동 ..... P.128
- 25 김창협, 산민 ..... P.130
- 26 작자 미상, 합강정가 ..... P.132
- 27 작자 미상, 계녀가 ..... P.138

<b>28</b>	허난설현, 규원가	P.144
<b>29</b>	임유후, 목동가	P.159
<b>30</b>	이정, 풍계육가	P.168
<b>31</b>	윤선도, 만흥	P.175
<b>32</b>	작자 미상, 규수상사곡	P.190
<b>33</b>	박효관, 임 그린 상사몽이~	P.194

혼자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2주 완성 추천 PLAN

훈련도감-E 수록정복 [고전시가]

DAY	날짜	작품	학습 CHECK
<b>1</b>	/	<b>INTRO</b>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input type="checkbox"/>
<b>2</b>	/	<b>01</b> 안민영, 「고을사 저 꽃이어~」 <b>02</b> 오경화, 「피골피골 우는 소리에~」 <b>03</b> 이규보,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input type="checkbox"/>
<b>3</b>	/	<b>04</b> 신충, 「원가」 <b>05</b> 이순신, 「진중음」 <b>06</b>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input type="checkbox"/>
<b>4</b>	/	<b>07</b> 김삼현, 「내 영혼 술에 섞여~」 <b>08</b> 작자 미상,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b>09</b> 정훈, 「월곡답가」	<input type="checkbox"/>
<b>5</b>	/	<b>10</b> 조식, 「두류산 양단수를~」 <b>11</b> 김천택, 「요일월 순건곤은~」 <b>12</b> 작자 미상, 「대장부 공 이루고~」	<input type="checkbox"/>
<b>6</b>	/	<b>13</b> 원천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b>14</b> 작자 미상, 「연못에 비 오는 소리~」 <b>15</b>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input type="checkbox"/>
<b>7</b>	/	<b>16</b> 송순, 「면양정가」	<input type="checkbox"/>
<b>8</b>	/	<b>17</b> 작자 미상, 「사친가」 <b>18</b> 이진유, 「속사미인곡」 <b>19</b> 작자 미상, 「몽금포 타령」	<input type="checkbox"/>
<b>9</b>	/	<b>20</b> 이중경, 「어부별곡」 <b>21</b> 작자 미상, 「유산가」	<input type="checkbox"/>
<b>10</b>	/	<b>22</b> 신교, 「백석정별곡」 <b>23</b> 김상헌, 「성패관천운」 <b>24</b> 최명길, 「정처관군동」	<input type="checkbox"/>
<b>11</b>	/	<b>25</b> 김창현, 「산민」 <b>26</b> 작자 미상, 「합강정가」 <b>27</b> 작자 미상, 「계녀가」	<input type="checkbox"/>
<b>12</b>	/	<b>28</b> 허난설현, 「규원가」 <b>29</b> 임유후, 「목동가」	<input type="checkbox"/>
<b>13</b>	/	<b>30</b> 이정, 「풍계육가」 <b>31</b> 윤선도, 「만흥」	<input type="checkbox"/>
<b>14</b>	/	<b>32</b> 작자 미상, 「규수상사곡」 <b>33</b> 박효관, 「임 그린 상사몽이~」	<input type="checkbox"/>



**INTRO**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최근 평가원 시험에서 고전시가는 EBS 연계 작품이 한 작품 이상 출제되고 있어. 또 EBS 수능 연계 교재 지문에 실린 장면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꼼꼼히 학습해 두는 것이 좋아. 이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연계 작품들을 살펴 보면서 학습 방향을 잡아 보자.

2026 수능에 출제된 EBS 연계 지문

**수능**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사람 솜씨 아나  
 관가 술이 분명하네 그 곡절 모를쏘나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으니  
 아는 체 무엇 하리 담뱃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甘紅露)와 다름없네  
 속 깊도다 이 부사(府使)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부터 종성까지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버선 행진(行纈)\*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구나  
 이 물골 이 거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못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여(藍輿)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을 드리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저 기생의 말 보아라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또 물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갖은 어찌 꺾어지고 웃은 어찌 까마며  
 발 땀이 더욱 좋다 짚신조차 신었구나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범일러니 보니까 미역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의를 갖춘 후에 좌수 이방 잡아들여  
 몹시 치며 형추\* 하니 정강이에 찢어지데  
 큰칼 씌워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그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더라  
 아까는 조롱터니 지금은 떠는구나  
 네 거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회령 자고 어디 갈꼬 부령으로 가오리라  
 고평산(古豊山)\* 어두울 때 원(院)집으로 들어가니  
 밤중에 숨이 막혀 놀라 깨서 일어나니  
 온 방에 연기가 가득 병풍에 불이 붙테  
 저고리 찾아보니 개자추\*가 되었더라  
 하마터면 화장될네 중의 신세 면했구나  
 남의 옷 얻어 입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부령길이 무섭더라 불시에 지진 나서  
 밀정한 평지가 도처에서 꺼지니  
 그 속에 한번 들면 다시 날 수 있을쏘나

(중략)

**수능** 여러 달 굶주리다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성대하나 하나라도 살로 가랴  
 여러 날 추위에 떨다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느니 냉수로다  
 그 누가 어사 벼슬 좋다고 하였던가  
 봉고파출(封庫罷黜)\* 쾌한 일인가 형문 곤장 차마 하라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송자\*는 원망하며 몹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찌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어찌 다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상관할 일 있더라  
 내 애써 다니면서 백성 고통 자세히 알아  
 달날이 보고하니 조정에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고여덟 시행을 아니 하면  
 그 아니 허망한가 이 일이 상관있다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것 많더라  
 위로하여 주시면 부당도화 하오리라\*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 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리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쏘나 형편이 하릴없다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쏘나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차마 가겠는가 머물며 위로한 말  
 우리 주상 전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  
 날 보내어 알려 하시니 내 가서 아뢰려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비노니 햇빛 아래 백배(百拜)하고 비노니  
 불기운이 포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의 저 사람들 거의 거의 도모하리  
 만 넘게 늙은 몸이 임금 은혜 아니시면  
 육천오백 리 먼 길을 탈 없이 왔겠는가  
 아이야 잔 씻어라 천황씨(天皇氏) 일만 팔천  
 지황씨(地皇氏) 일만 팔천 합하여 삼만 육천 세를  
 우리 넘게 현수하자

- 구강, 「복새곡」 -

- \*행진: 버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
- \*형추: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깨문던 일.
- \*고평산: 함경북도 회령군에 있는 지명.
- \*개자추: 중국 춘추 시대 진(晉) 문공(文公)의 신하로, 면산에 은둔했는데, 문공이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으나 나오지 않고 타 죽음.
- \*봉고파출: 어사가 부정을 저지른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고을의 창고를 봉하여 잠 그는 일.
- \*낙송자: 소송에서 패한 사람.
- \*부당도화 하오리라: 어렵고 힘겨운 일을 피하지 않으리라.
- \*포택: 은덕과 혜택을 베풀.
- \*음곡: 그늘진 골짜기.

EBS 연계

온성이 몇 리런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니  
홀연히 소주 장사 앞에 와 팔려 하니  
그 술을 먹어 보자 ㉡촌인(村人)의 솜씨 아녀  
분명 관가 술일네 그 곡절 모름소냐  
이 사람이 술 즐거움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독에 빚어 예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수상히 오는 손을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들으니  
알은체 무엇 하리 담뱃대 돌을 주고  
한 병을 기울이니 감홍로와 진배없네  
㉣유십터라 이 부사야 너 언제 날 알더냐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  
이 몰골 이 거동을 남 뵈기 부끄럽다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억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

(중략)

여러 달 주리다가 혹시 혹시 출두하면  
음식은 장하건만 하나나 살로 가라  
여러 날 집떨다가 더운 방에 들어오면  
가슴에 열이 나니 먹느니 냉수로다  
뉘라서 어사 벼슬 좋다고 하던가  
봉고파출\* 쾌한 일가 형문 곤장 차마 하라  
못할 일 마지못하니 제 심정 글러지고  
송사 진 이 원통하여 뉘쓸 말 지어내니  
모르는 이 어이 알리 그 말을 곧이듣네  
고맙단 이 잠깐이오 원수는 대대로다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 구강, 「복새곡」 -

\*봉고파출: 어사가 고을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잠금.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행로를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되는 인식으로, 서성 밖까지 이르는 여정이 고단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술맛에 대한 평가로, 장사가 홀연히 등장했다는 인식과 함께 술의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③ ㉢은 장사에게 화자가 어떻게 보였는지 추측한 진술로, 화자에게 물건을 싸게 판 이유를 추정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 ④ ㉣은 이 부사에 대한 평가로, 좋은 술을 얻은 것은 그가 옛 인연이 있었던 화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 ⑤ ㉤은 발을 내려 모습을 가리는 행위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위엄을 세우기 어렵겠다는 인식과 연결되고 있다.

3. 윗글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 또는 ✕로 답하시오.

보기

윗글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장면 속에서 묘사된 행위를 통해 정서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화자를 대상화하며 해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 3-1 얼음물에 빠져 '버선 행전' 다 적시는 대목은 경험을 실감 나게 보여 주면서 화자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하여 '동태가 되었더라'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군. ○ ✕
- 3-2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을 드러내는군. ○ ✕

1. 윗글을 읽고 ○ 또는 ✕로 답하시오.

- 1-1 남의 말을 인용하여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 ✕
- 1-2 대구와 대조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화자의 괴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 1-3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배경 속에서 대상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 ✕

어와 여중들이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해가 어떤 해노 우리 임금 화갑(華甲)<sup>\*</sup>이라  
 화봉의 축원(祝願)<sup>\*</sup>으로 우리 임금 축수(祝手)하고  
 강구(康衢)<sup>\*</sup>의 격양가(擊壤歌)<sup>\*</sup> 우리 여인 화답하네  
 인정전 높은 진 수연(壽宴)<sup>\*</sup>을 배설하니  
 백관(百官) 헌수(獻壽)<sup>\*</sup>하고 창생(蒼生)은 고무(鼓舞)한다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慶科)<sup>\*</sup>를 보이시니  
 목목(穆穆)하신<sup>\*</sup> 우리 임금 서일(瑞日)같이 임하시고  
 빈빈(彬彬)한 명유(名儒)들은 화상(華床)<sup>\*</sup>에 분주하다

**9평** |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로  
 불한불열(不寒不熱) 삼춘(三春)이라  
 심류청사(深柳靑絲)<sup>\*</sup> 드린 곳에 황앵(黃鶯) 편편(片片)하고  
 천봉수장(天崩繡帳)<sup>\*</sup> 배푼 곳에 봉접(蜂蝶)이 분분(紛紛)하다  
 우리 황앵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太平世)에 아니 놀고 무엇 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늙음 하려 하고  
 일자를 정차 하니 길일양사(吉日良事)<sup>\*</sup> 언제런고  
 이월이라 엽오일(念五日)<sup>\*</sup>은 청명시절(淸明時節)<sup>\*</sup>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덧에 다 달고야  
 아이종 급히 불러 앞뒷질 서로 일러  
 소식하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應粧盛飾)<sup>\*</sup> 찬란하다  
 원산(遠山) 같은 눈썹이랑 아미(蛾眉)로 다스리고  
 횡운(橫雲) 같은 귀밑일랑 선빈(鮮鬢)<sup>\*</sup>으로 꾸미도다  
 동해에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추양(秋陽)에 바랜 베를 연반물 들어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佳麗江山) 찾았으되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山明秀麗)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泰山) 같은 고봉준령(高峯峻嶺)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勝地)에 다달거다

(중략)

**9평** | 창계변에 복성꽃은 무릉원(武陵源)이 의연(毅然)하다  
 이러한 좋은 경계 흠 없이 다 즐기니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화간(花間)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규중(閩中)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快)한지고  
 흉금(胸襟)이 상연(爽然)<sup>\*</sup>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長長春日)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여  
 층암고산(層岩高山)에 모연(暮煙)<sup>\*</sup>이 일어나고  
 벽수동리(碧樹洞裏)에 속조(宿鳥)<sup>\*</sup>가 돌아든다  
 흥(興)대로 놀러 하면 인간의 자연취객(自然醉客)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時和歲豐)<sup>\*</sup> 하거들랑 창안백발(蒼顏白髮)<sup>\*</sup> 훗날리고  
 고향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 \*화갑: 화갑자. 육십갑자의 한 주기로서 60세가 되는 해. 또는 그 나이.
- \*화봉의 축원: '화'라는 벼슬아치가 요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며 축하했다는 고사에 인용함.
- \*강구: 변화한 거리.
- \*격양가: 임금의 성덕과 나라의 태평을 칭송하는 노래. '고복격양'이라는 고사에 언급됨.
- \*수연: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
- \*헌수: 환갑잔치 따위에서, 장수를 빌며 술잔을 올림.
- \*경과: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과거 시험.
- \*목목하신: 위엄 있는 모습이 가득하심.
- \*서일: 상서로운 해.
- \*화상: 화갑 상.
- \*심류청사: 버드나무 푸른 가지.
- \*천봉수장: 하늘을 활어 내어 수놓아 펼쳐 놓은 장막.
- \*길일양사: 일을 벌이기에 좋은 날.
- \*엽오일: 이십오 일.
- \*청명시절: '청명'은 춘분과 곡우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청명'이 있는 시기.
- \*응장성식: 호화로운 장식.
- \*선빈: 고운 머리채.
- \*상연: 심신이 다 상쾌한 모양.
- \*모연: 저녁 안개.
- \*속조: 잠을 자러 가는 새.
- \*시화세풍: 나라 안이 태평하고, 또 풍년이 들.
- \*창안백발: 늙은이의 쇠한 얼굴빛과 하얗게 센 머리털.

**9평** | 공명을 헤아리니 영옥이 반이로다  
 동문에 쾌관하고<sup>\*</sup> 전려<sup>\*</sup>에 돌아와서 성경현전<sup>\*</sup> 해져 놓고 임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피에 얻진<sup>\*</sup>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sup>\*</sup>하여  
 임의소요<sup>\*</sup>하니 청풍이 시지하고<sup>\*</sup> 명월이 자래하니<sup>\*</sup>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老死太平)하여 승화귀진<sup>\*</sup>하면 그 좋  
 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쾌관하고: 동쪽 성문에 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그만두고.
- \*전려: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들에 지은 집. 시골.
- \*성경현전: 성현들이 지은 훌륭한 책들.
- \*얻진: 썩이 길게 자란.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임의소요: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니는 것.
- \*시지하고: 때마침 불고.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여 살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맡기는 것.

(가)

EBS 연계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피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풀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피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차레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벌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어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화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려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길 이에서 더할소나

(중략)

EBS 연계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나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러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훑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 작자 미상, 「화전가」 -

\*정관: 술.

(나)

EBS 연계

㉦공명을 헤아리니 영육이 반이로다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입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뎠에 얻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시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소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괴  
 좋은가 하노라 ㉧

- 작자 미상 -

\*동문에 쾌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4.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 ③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 김삼현, 내 영혼 술에 섞어~

**KEYWORD**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평시조

### 작품 풀어 읽기

시적 대상

**내 영혼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들어  
추상적 대상('영혼')의 구체화('술'에 섞임) / 불가능한 상황 설정  
내 영혼이 술에 섞여서 임의 속에 흘러들어

• 자신의 영혼을 술에 섞어서 임 속에 들어가고자 함 **[초장]**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망정**  
음성 상징어('굽이굽이') / 역동적 이미지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망정

• 술에 섞여 임의 창자를 돌아다니겠다고 함 **[중장]**

나를 잇고 <sup>대비(→ 초장 '내')</sup>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영탄(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함) / 임의 속으로 흘러들어 가고자 하는 이유  
나를 잇고 남에게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 술이 되어 다른 이를 생각하는 임의 마음을 태우려 함 **[종장]**

###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α1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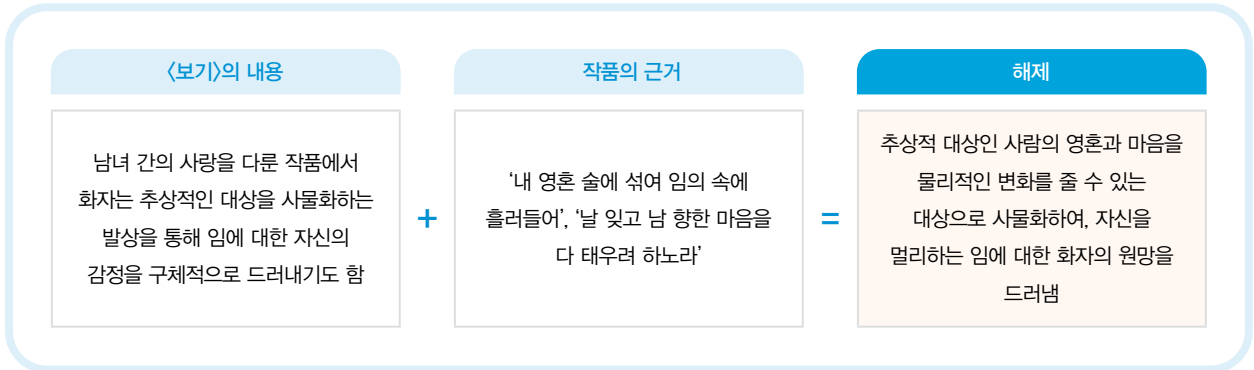
추상적 대상	내 영혼
↓	
구체화	술에 섞임 → 임의 속에 흘러 들어감 →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함

E1 '남'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게 임의 마음을 얻은 사람을 의미함

화자	남
임에게 잊힌 처지	← 임의 마음을 받는 처지

###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



### 작품 파고들기

• 고유한 작품 영역을 개척한 김삼현의 「내 영혼 술에 섞어~」

표면적으로 사랑과 이별을 드러내는 시조의 대부분은 흔히 임금에 대한 충성의 우의적 표현으로 읽히지만 김삼현의 시조는 사뭇 다르다. 「내 영혼 술에 섞어~」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기생에 폭 빠져 임을 그리워하는 한량인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들만의 주제를 개척하려 한 장현, 주익식 등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는 『진본 청구영언』의 「여향육인」조에 이 김삼현의 시조가 함께 실려 있는 것을 볼 때, 「내 영혼 술에 섞어~」는 조선 후기 도시인의 일상과 생각들이 표출되면서 탄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주제: '나'를 잊은 입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 표현상의 특징

-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근거** 초장~중장 '내 영혼 술에 섞여 입의 속에 흘러들어~다 태우려 하노라'
  - 대비 **근거** 초장 '내'와 중장 '남'
  - 역동적 이미지 **근거** 중장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망정'
  - 음성 상징어 **근거** 중장 '굽이굽이'
  - 영탄 **근거** 중장 '날 잊고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

# 작자 미상,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KEYWORD** #이별로 인한 슬픔 #해학 #대화체 #사설시조

## 작품 풀어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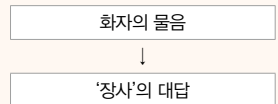
시적 대상

- α1**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이별 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이별 상황을 수선 대상으로 구체화함  
 화자의 소망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  
 창밖의 가마솔을 때우라고 하는 장사야 이별 난 구멍도 때우는가  
 • 이별로 난 구멍을 때울 수 있냐고 가마솔 때우는 장사에게 물음 **초장**
- 장사의 대답하는 말이 **E1**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호령하되 위엄으로 못 막고 제갈량의  
 나열 / 인용(장사의 답변을 직접적으로 인용함)  
 장사가 대답하는 말이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호령하였지만 위엄으로 막지 못하였고 제갈량의  
 힘이 매우 센 장사  
천하 경영하는 재주로도 막았다는 말 못 들었고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천하를 경영하는 재주로도 막았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 구멍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막았으니 이 구멍 때우라는 말이 우습게 들린다  
 • 장사는 이별 구멍은 누구도 때울 수 없다고 대답함 **중장**
- 진실로 **E2** 장사의 말과 같을진대 긴 이별인가 하노라  
 영탄 / 긴 시간 동안 임과 이별해야 하는 절망적 현실 인식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으므로 긴 이별인가 하노라  
 • 어쩔 수 없이 임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탄식함 **종장**

\*때우라는: 뚫리거나 깨진 곳을 다른 조각으로 대어 막으라는.

## EBS는 이렇게 물었다 + α

### α1 대화의 형식



- E1** 역사적 인물들의 속성을 나열하며, 임과의 이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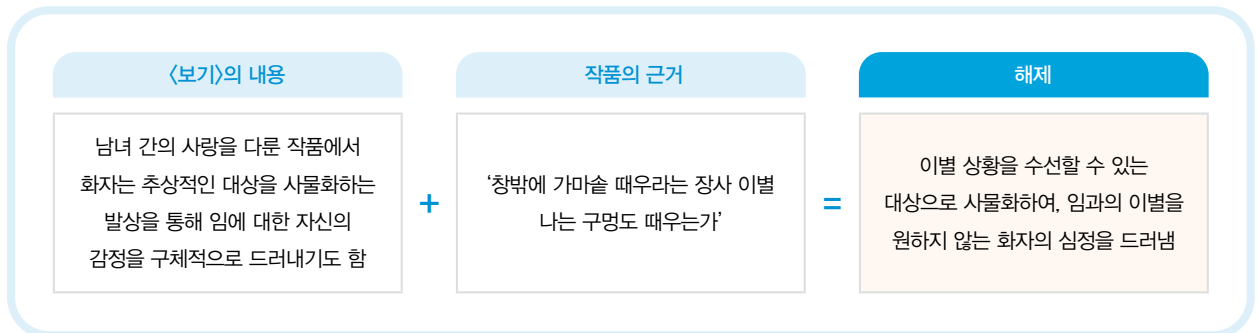
진시황 한 무제	천지를 호령하는 위엄을 지닌 인물
제갈량	천하를 경영하는 재주를 지닌 인물
서초 패왕	대륙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인물

↓  
 역사적 인물들이 지닌 능력(위엄, 재주, 힘)으로도 이별의 상황을 막지 못함

- E2** '장사'는 임과의 이별을 막을 수 있느냐는 화자의 물음에 대해 역사적 인물들도 임과의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답하며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환기시켜 줌

## EBS <보기>의 공식

| 작품 | 작가 | 현실 | 독자 | 기타 |



## 작품 파고들기

### • 사설시조에 나타난 상행위로 본,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사설시조에는 특히 장사꾼과 고객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행위의 현상이 드러나는 작품이 많은데,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도 '이별 나는 구멍'과 같은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대상의 거래 행위가 사설시조를 통해서 연행됨을 볼 수 있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시조와는 다르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 상행위를 연결 지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행위를 사설시조의 연행 현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의 경제관과 애정관의 변화를 알리는 증거가 된다. 평시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장사꾼과의 애정에 대한 흥정이나 대화가 사설시조에 와서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증거라 볼 수 있다.

## 작품 마무리

▶ 주제: 임과 이별 후의 슬픔과 탄식

### ▶ 표현상의 특징

- 대화 **근거** 초장(화자의 물음)과 중장(장사의 답변)
-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근거** 초장 '이별 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 인용 **근거** 중장 '진시황 한 무제는~이 구멍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 나열 **근거** 중장 '진시황 한 무제는~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 영탄 **근거** 중장 '긴 이별인가 하노라'

(가)

㉠이보소 저 각시님 설은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은 줄 다 모를새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광한전 백옥경의 님을 뵈셔 즐기더니

이양을 하였거니 재양인들 업슬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업네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경 내 알던가

원양침 비취금에 뵈셔 본 적 전혀 업네

[A]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를가  
 엇언지 님 향(向)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학\*이 앞에 잇고 부월\*이 뒤에 이셔  
 일백 번 죽고 죽어 뼈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는 것만 업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조를 시기했나 귀신이 훼방했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괴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남이 어이 알겠는가

(중략)

뵈셔서 이리하기 각시님 같던들  
 설움에 이리하며 생각인들 이리할가  
 차생의 이리커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식여져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덮였으면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하일 청음\*의 님 계신 데 붙어서  
 그도 마소 하면 일륜명월 되어서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최고저

- 김춘택, 「별사미인곡」 -

- \*정학: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 \*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상광 오색: 다섯 가지의 길한 빛.
- \*하일 청음: 여름날의 맑고 시원한 응달.

(나)

님으람\*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칩녕쿨이 되야

그 나무에 그 칩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촌촌 저리  
로 촌촌 외오 풀러 올히 감아 얼겨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업시 찬찬 굽의 나게 휘휘 감겨 주야 장상  
(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 잇서

동(冬)섯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맛즌들 ㉠떨어질 줄  
이시랴

- 이정보 -

\*님으람: 임은.

(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열여섯에 덕수 이씨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  
서 딸 하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구월 초하루에 돌아  
가 사십삼 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  
를 꾸릴 방도가 없느니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  
나를 데리고 솔과 그릇가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  
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  
사 어제 일만 같구나.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간  
빼는 말투를 흉내 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빛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  
리고는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댔  
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벌 노  
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금  
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  
람에 펄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굽이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  
다. 강가 멀리 앞은 산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  
처럼 검푸르고, 강물 빛은 그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  
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빛을 떨어뜨리던 그날의 일  
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  
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  
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  
름겨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  
다.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B]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  
- 박지원, 「백지증정부인박씨묘지명」 -

\*경좌: 서남쪽을 등진 방향.

\*명정: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 ③ ㉢: 화자가 입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글쓴이가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 3.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과거에 입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②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입에게 호소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입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입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 ⑤ 자신의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등이 있다.

- ①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삼사월 칩넝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그 나무에 그 칩이 납거미 나비 감듯’은 입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섯달’은 모두 화자가 입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입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5.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글쓴이가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B]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6.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선생님:**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을 찾아봅시다.

**학생 1:**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 ㉠

**학생 2:**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

**학생 3:**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 ㉢

**학생 4:**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 ㉣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INTRO

## 2026학년도 기출로 살펴보는 EBS 연계 출제

### 정답

- 1-1. ✕    1-2. ○    1-3. ✕    2. ④
- 3-1. ○    3-2. ○    4. ②    5-1. ✕
- 5-2. ○    5-3. ○    5-4. ○    6-1. ✕
- 6-2. ○    6-3. ✕    6-4. ○    6-5. ○
- 7-1. ○    7-2. ○    7-3. ✕    7-4. ○
- 7-5. ○    8-1. ✕    8-2. ✕    8-3. ○
- 8-4. ✕    8-5. ✕    9-1. ✕    9-2. ○
- 9-3. ✕    9-4. ✕    10. ④    11-1. ○
- 11-2. ✕    11-3. ○    11-4. ○

[1~3] 26수능

구강, 「복새곡」

### 1-1. ✕

#### | 정답 풀이 |

윗글의 '여기에서 종성 가기 오십 리가 된다 하니'에서 남에게 들은 말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목적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드러낼 뿐 목적지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1-2. ○

#### | 정답 풀이 |

윗글의 '고맙단 이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에서 대구와 대조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고된 어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겪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 1-3. ✕

#### | 정답 풀이 |

윗글에서 색채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2. ④

#### | 정답 풀이 |

윗글의 ㉔(유심터라 이 부사야)에서 화자는 자신이 '술'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듣고 미리 좋은 술을 준비하여 싸게 판 이 부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화자가 좋은 술을 얻은 이유는 화자가 술을 즐긴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부사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와 이 부사가 옛날부터 인연이 있다는 내용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

- ① 윗글에서 화자는 '우리 말이 지쳤구나'라고 판단하여 행로를 멈추고 '서성 밖에 잠깐 쉬어 말 얻어 먹이려'고 한다. 따라서 ㉔(우리 말이 지쳤구나)에는 화자가 행로를 잠시 멈추게 된 이유와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 여러 지방을 이동하는 화자의 여정이 고단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② 윗글에서 화자는 '홀연히' 나타난 소주 장사가 건넌 술맛을 보고 '촌인의 솜씨'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고는 이 술이 '분명 관가 술'이며 자신이 '술 즐기며 태수'가 듣고 소주 장사로 하여금 기다리고 있다가 술을 팔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㉔(촌인의 솜씨야)은 술의 출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윗글의 '수상히 오는 손을 / 나인 줄 짐작하고 짐짓 싸게 파는구나'에서 화자는 소주 장사가 본 자신의 모습이 수상하게 오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즉 화자는 소주 장사가 자신을 보고 어사임을 짐작하고 '술'을 싸게 팔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㉔(수상히 오는 손)은 화자에게 물건을 싸게 판 이유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윗글의 '만인 중에 출두하고 남여 위에 높게 앉아 / 역지로 발 드리운들 그 누가 저어하리'에서 화자는 '얼음 밑'에 빠져 젖은 자신의 모습을 발을 내려 가린다고 한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㉔(역지로 발 드리운들)은 발을 내려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행위의 효과를 의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위엄을 세우기 어렵겠다는 인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3-1. ○

####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윗글은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화자를 대상화하며 해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윗글의 '바빠 가는 저문 길에 얼음 밑에 빠지고나 / 버선 행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되었더라'에서 화자는 얼음물에 빠져 '버선 행전'을 다 적신 자신의 모습을 '동태'에 빗댄다. 이는 화자의 경험을 실감나게 보여 주며, 화자를 장면 속에서 대상화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④

[1~4] 1907학평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 / 정훈, 「월곡답가」

**1. ①**

| 정답 풀이 |

(가)의 '임 여히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 '아름다운 자태 거동 이목에 매여 있어 / 못 보아 병이 되고 못 잊어 원수로다' 등에서 흠모하는 임과 이별한 화자가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의 '나 혼자 었디 후야넷 사름을 그리노고', '홍중에 사념이 업스니 그롤 수랑후노라' 등에서 흠모하는 벗을 만날 수 없는 화자가 부재하는 벗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② (가)의 '임 여히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 / 삼춘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에서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임이 화자를 외면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나)의 '초옥삼간이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 홍중에 사념이 업스니 그롤 수랑후노라'에서 화자가 벗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화자가 벗에게 외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가), (나)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세상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가)에서는 화자가 사모하는 대상이 '임'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사모하는 대상이 '벗 사름', '벗님' 등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가)와 (나) 모두 화자가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모습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가), (나) 모두 화자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모습이나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2. ③**

| 정답 풀이 |

(가)에서 ㉠(추풍)은 화자에게 '별회를 부쳐내'는 대상이므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가)에서 ㉠(죽창)은 화자가 '상사몽'을 꾸 뒤 자신이 느끼는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연 소재일 뿐,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볼 수 없다.
- ② (가)의 '인정이 끈졌으면'은 화자와 임이 이별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정)은 이별 전에 화자와 임이 나누었던 사랑을 의미할 뿐,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백운)은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주위를 두른 것으로 자연 속에서 은둔하는 임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화자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없다.
- ⑤ (나)에서 ㉣(상산)은 화자가 임과 함께 개고자 하는 '영지'가 자라난 공간일 뿐, 화자와 임이 함께 지내는 공간인지는 알 수 없다.

**3. ⑤**

| 정답 풀이 |

[E]에서 '아해'는 화자가 '술'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대상일 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 ① [A]의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찬 기운이 새로워라'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화함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동일한 문장 구조인 '~에 ~L 듯'을 반복하여 임을 떠나보낸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쓸쓸한 가을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C]의 '소월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 슬피운다'에서 화자의 애상감이 투영된 대상인 '잔나비'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슬픔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D]의 '삼춘에 즐기던 일 예련가 꿈이련가'에서 화자가 '삼춘에 즐기던' 일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 여히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끈치리라'에서 과거와 달리 임과 함께하지 않는 현재의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4. ④**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우도'를 다룬 (나)에서는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여 '친자연적 삶의 모습' 등의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낸다. 그런데 (나)의 〈제7수〉에서 벗의 집을 둘러싼 '미'와 '구름'은 벗의 '집'을 보려 하는 화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일 뿐, 작가가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

# 15

이정보

· 문제 P.061

## 「임오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④    5. ①  
6. ⑤

### [1~6] 2203학평

김춘택, 「별사미인곡」 /  
이정보, 「님오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가 되고~」 /  
박지원,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 1. ④

#### | 정답 풀이 |

(가)는 '되셔 본 적 전혀 업'는 입을 떠올리며 '빠가 가루가 된 후라도 /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워하고 있다. (다)는 죽은 큰누님과의 일화와 큰누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 ① (가)는 '일백 번 죽고 죽어 빠가 가루가 된 후라도 /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순가'에서 입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과거의 인연을 끊으려 하는 모습이나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 ② (나)는 입을 '오리나무', 화자를 '취녕쿨'에 비유하고 '떨어질 줄 이시랴'라고 하여 입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자의 소망일 뿐, 새로운 목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다)에서 죽은 큰누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라고 생각한 것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는 입을 '원앙침 비취금에 되셔 본 적 전혀 업'어 '설움이 이려하'다며 입을 모셔 보지 못한 현실을 인식하고 서러워하고 있고, (다)는 큰누님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입이 '오리나무'가 되고 화자는 '취녕쿨'이 되어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날 뿐,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가), (나), (다)는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지 않는다.

### 2. ⑤

#### | 정답 풀이 |

㉔(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은 (다)의 글쓴이가 죽은 큰누님과 형제로 함께한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죽은 큰누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오답 풀이 |

- ① ㉓(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에서 (가)의 화자는 상대인 '저 각시'를 부르며, '설운 말씀 그만하오'라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순가)에서 (가)의 화자는 인연과 이별이 모두 같을 수 없다고 하며, 각각의 인연과 이별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㉑(떨어질 줄 이시랴)은 (나)의 화자가 '동섯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맛즌들' 입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입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㉔(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점잔 빼는 말투를 흉내 냈다.)에서 (다)의 글쓴이는 당시 자신의 나이를 '여덟 살'이라 밝히고, 드러눕고 발버둥 치며 새신랑을 흉내 내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린 시절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3. ④

#### | 정답 풀이 |

[A]에서 화자는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이를가'라며 자신의 '얼굴'과 '거동' 중에 임이 사랑할 것이 있을까 걱정하고, 이어서 '길쌈'과 '가무' 등의 재주도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 ① [A]에서 화자는 '엇언지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을 / 하늘이 생기고 성현이 가르쳐서'라며 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하늘이 주신 것이라고 하였을 뿐, 입과 만나게 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 ② [A]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 내 몸이 지은 죄를 모르니 그 더 죄라'에서 화자는 입과 이별한 것이 자신의 '팔자'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으므로, 화자가 입에게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A]에서 '님 섬기랴 원'을 지닌 화자는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입에게 전달하고자 하지만, '조물(조물주)'이 '시기'하고 '귀신'이 '훼방'을 놓은 것처럼 자신의 '팔자'로 인해 끝내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해 탄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만든 물건을 입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A]에서 화자는 '님 향한 한 조각 이 마음' '성현이 가르쳐 준 것이 라고 표현할 뿐,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 4. ④

##### | 정답 풀이 |

〈보기〉에 따르면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가)는 죽어서 '구름'이나 '바람'이 되어서라도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나)는 임이 '오리나무'가 되고 자신은 '취녕쿨'이 되어 서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가)의 '해 다 저문 날'은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저 각시님'이 떠나가는 시간이며,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나)의 '동섯달'은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람비 눈서리'를 맞는 시간으로, 화자는 이를 '아무리 맛즌들 떨어질 줄 이시라'라며 임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동섯달'은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 | 오답 풀이 |

- ①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으로 구현된다. (가)의 화자는 임을 '뫼셔 본 적 전혀 업'는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식어져 구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으로 구현된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삼사월 취녕쿨'이 되고, 임은 '오리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그 취이' 얽혀 함께하는 것처럼 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삼사월 취녕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이므로 적절하다.
- ③ 〈보기〉에 따르면 '변신의 양상'에는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삼사월 취녕쿨'이 되고, 임은 '오리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그 취이 납거미 나비 감듯' 얽혀 함께하는 것처럼 임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보기〉에 따르면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가)의 화자는 '바람이나 되어서 / 하일 청음의 님 계신 데 불'고 싶다며 화자 자신의 변신을 바라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님'이 '회양 금성 오리나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즉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임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①

##### | 정답 풀이 |

(다)에서 글쓰기와 죽은 큰누님이 무엇을 약속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B]에서도 누님과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

- ② (다)에서는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에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의 맥락을 고려하면, [B]의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 ③ (다)의 글쓰이는 [B]에서 사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B]의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글쓰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에서 글쓰이는 죽은 누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현실에 슬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B]에서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라는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 6. ⑤

##### | 정답 풀이 |

- ⑥ 〈보기〉의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하는 등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다. (다)에는 죽은 누님의 남편인 백규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어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선산인 아곡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㉞(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는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하던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㉟, ㉠ 〈보기〉의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박지원은 묘지명에 대해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에는 글쓰이가 '여덟 살' 때 화가 난 자신을 위해 죽은 누님이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랜 일화와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시집가던 날 누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와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쓰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는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므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EBS 연계 작품들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



현대시 편



고전시가 편



현대산문 편



고전산문 편

- 이투스 1타 박광일 강사의 강의 [훈련도감-E 수특정복]을 통해 연계 작품을 심도 있고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작품과 관련된 전 기출을 수록하여 훈련도감-E 수특정복 시리즈만으로도 연계 출제 대비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EBS 연계 공부법이 궁금하다면 '국어는 박광일' 유튜브의 관련 영상을 참고하세요.



숫자로 보는

## 도서출판 홀수



2014년

도서출판 홀수 설립 연도



340종

도서출판 홀수가 발간한 책 종수



200년↑

도서출판 홀수 직원들이 수능 국어를 연구한 시간의 총합



10년

끊임없는 개정과 개선으로 홀수 기출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여 온 시간



150만 부

도서출판 홀수 교재 누적 판매량



10만 건↑

홀수 기출 제작 시 참고한 수험생들의 Q&A 개수



1억 원↑

홀수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원한 금액



5,037명

홀수의 후원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진 청소년의 수

정가 20,000원  
ISBN 979-11-94350-49-1

